

## 대구·포항·경주지회, 선진농장 견학 실시

— 3개 지회 연합, 배움의 시간 갖아 —

대구, 포항, 경주지회가 연합으로 선진농장 견학 행사를 실시, 지회간 친목을 강화하는 한편 배움의 시간을 마련했다.

3개지회 45명의 회원은 지난 11월17일 버스를 대절, 충북 영동의 명천사슴농장(대표 배소식)과 전북 부안의 부안사슴농장(대표 허영수)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았다.

오전 6시부터 부지런히 준비, 명천사슴농장부터 찾은 각 지회 회원들은 농장 시설을 둘러보는 한편 농장주 배소식 사장이 정성껏 준비한 사슴고기 요리로 점심 식사를 실시했다.

사슴요리를 접한 회원들은 한결같이 “맛이 뛰어나다”고 입을 모으고 요리비법(?)

공개를 배소식사장에게 부탁했다.

배사장은 사슴고기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기의 ‘숙성’을 꼽고 숙성 방법을 회원들에게 상세히 안내했다. 더불어 점심시간을 통해 실시된 강의를 통해 ‘소비자에게 믿음을 줄수 있도록 농장을 운영할 것’과 ‘사슴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할 것’을 주문했다.

식사 후 전북 부안으로 자리를 옮긴 회원들은 부안사슴농장을 견학하고 농장주 허영수사장에게 농장 운영과 사슴관리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필요한 사항은 기재하는 등 배움에 대한 열의를 나타냈다.

농장 견학 후에는 새만금 간척사업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았으며 허영수사장이



▲ 명천사슴농장에서 사슴요리로 식사를 하는 회원들



▲ 본회 김수근 회장과 완담중인 부안 김종규 군수.

마련한 부안 특산물 ‘백합(조개류)’으로 요리한 ‘백합찜’, ‘백합죽’ 등으로 저녁 식사를 마쳤다.

이날 견학에 참석한 각 지회 회원들은 “농장 견학과 식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환대해 준 명천사슴농장과 부안사슴농장, 또 부안지회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입을 모으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자리를 함께한 본회 김수근 회장은 부안군 김종규 군수를 만나 부안지역 양록산업 지원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김수근 회장은 “부안 지역 양록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지원

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종규 군수는 “현재도 지역 양록농가에 대한 다채로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안 양록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김종규 군수는 이날 행사를 갖는 3개 지회 회원을 위해 지역 특산물인 가시오가피주 2박스를 선물했으며 김수근 회장은 미리 준비해간 기념품을 김군수에게 전달했다. **한국양록**